



8면

"노을대교 총사업비 증액 반영을"

# 전주매일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음 2월 3일) 제34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대 의대·병원 교수진 집단행동 '초읽기' 돌입

전공의·의대생 이어 시작 의향 밝혀... 이번 주 내 총회 열고 일정 논의할 듯  
정부 강경 입장 의지 따라 결정... 의료시스템 마비로 의료대란 피할 수 없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21여일째에 접어들었다. 이에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전북대병원 교수진들이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교수진들마저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질 경우 전북의 거점국립대학원의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 병원은 지난 9일부터 10까지 이틀간 자체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북대 의대 및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 82.4%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료만을 담당하는 임상교수들은 98%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빠른 이번 주 내 전체 교수 총회를 열고 행동방식 및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직서를 밝힌 이유에는 정부의 의대추진안은 물론 대학총장들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신청규모에 따

른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의 면허박탈 등 행정처분과 고소고발전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자 잠기간의 진료 시스템 마비에 따른 결정으로도 분석된다.

전북대병원은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진은 총 446명 중 206명이 전공의로 46.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의 일부 필수의료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수술의 핵심인 마취통증의학과와 경우 24명의 의료진 중 14명이 전공의다. 전공의 의존도가 58.3%에 달한다. 산부인과는 14명 중 5명인 35.7%가 전공의이며 응급의학과 의 경우 19명의 의료진 중 12명 (64.1%)이 전공의다.

정형외과도 28명 중 13명인 46.4%, 신경과 19명 중 9명인 47.3%, 정신건강의학과 18명 중 11명인 61.1% 등 전공의 비율이 높다.

의료진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사태에 높은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미루기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현 의료진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결국 임상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거점국립대학원인 전북대병원의 의료시스템은 마비,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의과대 학생들의 집단 휴학도 연과 돼 있다. 전북 의대생 1,142명 중 1,099명은 휴학계를 냈다. 학교별로는 전북대 669명 중 646명, 원광대 473명 중 45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집단 사직으로 3주간 휴강 형태의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급사태가 벌어지면 전공의 보충은 향후 몇년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의과대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을 고민하고 있어 의료교육 시스템도 울 스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북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설문조사가 현실화 될 경우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김재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3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D-day 표시판을 정리하고 있다.

## 목재 활용으로 탄소중립 앞장

전북자치도, 목재산업분야 생산·유통관리 등 25억 투입  
산림청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 선정

전북자치도는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탄소중립에 앞장서고자 친환경 탄소 저장고인 목재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재는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산림청에서는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공모)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39개소), 노후화된 목재생산 장비 지원을 위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1개소, 공모선정), 목재친화도시 조성, 공공건축물을 국산목재로 신축하는 목조건축 실현사업 등 2024년 기준 총 8개 분야 25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시·군 또한 목재가 올바르게 생산·유통 될 수 있도록 관계 소재하고 있는 목재생산업체(638개소,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 대상으로 상시 점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최근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된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공모사업에 정읍시 소재 어린이집이 선정되며 국산목재를 활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까운 곳에서 목재를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었다.

이처럼 전북자치도는 산림청 목재분야 공모사업 발표 시 시·군과 함께 적극 대응하여 목재문화 확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목재를 테마로한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목재이용과 관련하여 행사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 공공기관 사업 추진 시 국산목재 이용을 독려하는 등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복지국장은 "계속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매우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조례 20건 대상 후속조치 추진

전북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2023년도 조례입법평가 실시 결과, 조례 20건에 대한 후속조치(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15건, 통·폐합 3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된 후, 전북자치도의회는 제정된지 3년이 지난 조례 중 20개의 심층분석 대상조례를 선정하였으며, 입법정책담당관 자체평가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병행하여 조례 입법평가를 완료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 심층분석, 도 실무부서 의견수렴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일부개정 15건, 전부개정 2건, 유사 조례 통폐합 3건에 대한 '조례 제·개정 및 통폐합 권고안'을 이달 중에 상임위원회에 송부해 상반기에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심층분석 대상조례 20건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심층분석 대상 조례를 40건으로 확대 추진하여,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에 공보의·군의원 투입

전북자치도,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21여일째 접어든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한다.

1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이날부터 전북대병원에 4주간 4명(소아청소년과 1명, 일반의 3명)의 공보의를 배치한다. 또 원광대병원에는 6명의 공보의를 투입한다.

군의관은 전북권역응급센터인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오는 4월 7일까지 4주간 1명이 투입된다.

정부가 중심 정책관 삼입, 동맹형 체취, 기관 삼관 등 98개 진료항목을 간호사가 대신하게 하는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도 추진해 PA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게 한다.

이밖에도 전북자치도는 기존인력의 당직 수당 등 수가를 조사해 신규인력 채용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경우 운영상 수를 축소하고 병동을 통폐합해 운영한다. 부족한 의료진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과에 재배치

한다는 구상이다.

유사 진료과는 병동을 통합운영한다. 특히 응급실의 경우 기능을 축소해 중증환자 위주로 재편한다.

다만 이러한 의료진 투입이 현재의 의료대란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여성보건국장은 "상황이 상환인 만큼 상급종합은 중증과 응급을, 종합병원은 중증, 일반 병원은 경증을 맡게 하는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며 "환자이송도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엄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한국의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세계유산도시 남원





남원시